

곡성 국도엔 조선 紅松 가로수

곡성에 전국 최고의 '소나무 특화 숲'이 조성된다.
군은 최근 곡성 IC에서 곡성읍으로 진입하는 60번 국도 괴티재~곡성읍 구원리 구간 가로변 13개소에 150그루의 40~50년생 토종 소나무(홍송=紅松)를 심었다.

군은 오는 11월 말까지 곡성 신역사 소공원과 죽동 체육공원 등 3개소에 360~400 그루를 추가로 식재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09년까지 기차마을 부지 내에도 1천여 그루의 소나무를 옮겨 심어 소나무 특화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화 숲에 식재되는 소나무는 숲가꾸기 및 수종 개량지역내에서 베어질 나무를 활용하고 있어 사업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

군은 이를위해 수종(樹種) 경선을 희망하는 고달면 백곡리 이씨 문중 산(9ha)에 있는 높이 12~17m의 소나무를 매입했다. 곡성은 소나무 분포면적이 전체산림의 70%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겉표면이 붉은 토종 소나무여서 나무모양 또한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이 합심해 숲가꾸기 사업을 꾸준히 진행한 결과 숲 전체가 가지고 있는 목재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인 '임목축적(林木蓄積)'이 ha당 89m(전남



국도 60호인 곡성군 괴티재~곡성읍 구간에 심어진 홍송 가로수들. 곡성군은 전체 13곳에 토종 소나무를 심는 등 '소나무 숲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베어 낼 위기 처한 소나무 숲서 옮겨 심어

2009년까지 기차마을 등 1천그루 숲 조성

평균 72m)에 이르고 아직까지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 병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꼽

히고 있다. 곡성군은 산림청 녹색자금관리단에서 지난 2월 실시한 '도시림

(林) 조성사업' 공모 결과, 곡성읍 소도읍사업과 연계한 친환경적인 도시숲 공원화 사업지구로 확정돼 사업비 12억원도 확보했다. 서주섭(57) 곡성군 산림사업소장은 "병충해 방제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소나무 숲을 곡성의 상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송기동기자 song@

다산의 학술적 위상 기린다

연세대 다산실학연구원 주최

내달 2·3일 강진 문화회관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학술적 위상을 기리기 위한 국제학술회가 오는 11월 2·3일 연세대학교 강진 다산 실학연구원(원장 백영서) 주최로 강진군 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이광호 연세대 교수와 중국 칭화대 청강 교수, 일본 도쿄대 가와하라 교수 등 한·중·일 3개국 석학들이 참석해 '세계화 시대의 지평에서 보는 다산의 학문'이란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다.

이번 대회는 또 제 1부 '동서문명의 만남과 다산학의 성격', 제

2부 '동아시아의 서구문명에 대한 대응과 새로운 모색' 등으로 나뉘어 열린 토론회가 이어진다.

연세대 강진 다산 실학연구원은 강진군과 연세대가 관·학 협력사업으로 다산초당이 있는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에 지난 2006년 11월 설립한 전문 연구기관이다.

한편 강진군은 다산이 기거했던 사의재를 최근 복원하는 등 다산 유적지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낙엽 퇴비 농가 공급

광산군, 매주 2회씩

광산군이 가로수 낙엽을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무상 공급한다.

광산군은 다음달 1일부터 철단, 신창지구와 하남 산단 등지에서 낙엽수 거에 나선다.

수거된 낙엽은 광산군 산막동에 있는 퇴비장에서 1년 가량 숙성 과정을 거친 뒤 퇴비로 만들어져 내년 봄 농민들에게 공급된다.

광산군은 지난 2004년부터 낙엽 퇴비화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해에도 310t의 낙엽을 퇴비로 만들어 1천 2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최윤호 청소지도담당은 "거리 미관도 쾌적해지고 질 좋은 퇴비를 주성으로 공급해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광산=기원태기자 wrtee@

화순 능주 정보화마을

서구 부녀회 자매결연

화순군 능주면 정보화마을이 지난 29일 광주시 서구 쌍용금호아파트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했다.

이날 쌍용금호부녀회원들은 콩 탈곡과 벼 베기, 친환경 배농장 체험, 방울토마토 선별장과 파프리카 농장 견학 등 그린 투어리즘 행사를 가졌다.

이덕영 정보화마을 위원장은 "도농간 직거래를 활성화시켜 농가소득을 높이고 대도시 소비자들에게는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및 신뢰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비타민 C' 풍부한 참다래

보성군 조성면 한 농장에 등근 달걀 모양의 참다래가 주렁주렁 열렸다. 바다 바람을 맞으며 재배된 조성 참다래는 타 지역산에 비해 당도가 높고, 비타민 C가 풍부하다.

보성군 조성면 한 농장에 등근 달걀 모양의 참다래가 주렁주렁 열렸다. 바다 바람을 맞으며 재배된 조성 참다래는 타 지역산에 비해 당도가 높고, 비타민 C가 풍부하다.

/보성=인구일기자 giahn@

섬진강 주민 '간흡충' 감염률 높다

(간디스토마)

주민 7천여명 기생충 실태조사

광양·보성·곡성 지역 특히 높아

섬진강 일대 남부지역 주민들의 '간흡충(간디스토마) 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전국 장내 기생충 실태조사 현황'에 따르면 위험지역에 해당하는 곡성군·광양시·나주시·무안군·보성군·영암군에 대해 역학조사를 한 결과 피검자 7천491명 중 665명(8.87%)이 양성반응을 보였다.

감염률이 높은 지역은 ▲광양 15.2% ▲보성 13.2% ▲곡성 10.5% 등으로 나타났다.

장복심 국회의원은 "지자체의 노력으로 오염됐던 하천이 되살아나면서 간흡충의 제1중간숙주인 '왜 우렁이'나 제2중간숙주인 '민물고기' 사식처가 늘어 간흡충증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들의 민물고기 생식습관을 개선하고 정기적인 검진과 투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흡충(肝吸蟲·clonorchis sinensis)=간 흡충(길이 10~25mm, 너비 3~4mm)이 쓸개관에 기생함으로써 일어나는 간질환으로 간디스토마증이라고도 한다.

민물고기로부터 감염되며, 증세는 식후 위의 압박감·팽만감이 있고 심한 설사와 사지의 부종, 아랫배 등을 일으킨다. 병상이 심해짐에 따라 간이 비대해지고 복수가 생기며 간경변을 유발한다.

/영암=김한범기자 hnkim@

영암 우편집중국 삼호읍에 문열어

하루 50여만통의 우편물을 처리하는 영암 우편집중국(국장 정해호)이 31일 문을 연다.

영암군 삼호읍 용양리에 위치한 영암 우편집중국은 부지 1만2천942㎡ 규모로 지난 2004년 12월에 착공했다. 영암 우편집중국은 우편물 자동구분기 3대 등 최첨단 시설을 갖췄으며 서남권 7개 시·군지역의 우편물을 처리하게 된다.

우편집중국 개국으로 영암군이 전국 25개 우편집중국을 연결하는 물류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돼 최상의 우편 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 되고 있다.

/영암=김한범기자 hnkim@

장흥댐 74억 상당 시설물 수자원공, 군에 무상 이전

특산물판매장·체육공원 등

수자원공사가 장흥댐 주변지역에 조성한 주민편의시설이 장흥군에 무상으로 이전된다.

이전될 시설물은 유치면 송정지역 특산물판매장과 대리지역 생태섬, 체육공원 등 9곳으로 투자비만 74억원

에 달한다.

송정 특산물판매장의 경우 당초 수자원공사가 주민들에게 임대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장흥군으로의 소유권이전에 합의했다.

장흥군은 댐건설로 침체된 유치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판매장 관리권을 유치면과 유치면 사회단체에 넘길

방침이다.

장흥군은 이들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운영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光州日報 인터넷 신문
www.kwangju.co.kr

사계절 양산디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암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국립공원 내 10일 전용골프장

100여종의 야생화 100여종

100여종의 야생화 100여종